

화학공장의 안전·보건·환경 및 품질 통합관리(SHE&Q Management)에 관한 국내의 동향 및 발전방향

권혁면*, 문 일¹, 이영순², 윤인섭³

산업안전공단; ¹연세대학교; ²서울산업대학교; ³서울대학교

(hmkwon@kosha.net*)

지금은 통합의 시대이다. 넓게는 EU, NAFTA, WTO 등 경제통합의 유형에서 부터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놓은 통합 소프트웨어에 이르기 까지 아주 다양하다. 한편, 화학 공장에서의 안전·보건·환경 및 품질의 통합관리문제는 개별요소를 분리하여 관리하는데에 인력과 경비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학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노력과 연계하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.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중추적인 조정수단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추천되는데 이는 ISO 9001, ISO 14001, OSHAS 18001 등 국제적 요구사항도 고려하여야한다.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된 SHE&Q에 관한 OECD 워크샵의 회의결론에 따르면 안전·보건·환경 및 품질통합은 기업에게 많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나 통합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업장에서 통합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따라 화학공장에서 SHE&Q의 관리 강도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력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OECD의 SHE&Q 통합관리모델 사업을 한국이 주도국가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. 본 발표에서는 SHE&Q 통합관리의 국내의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등을 전달한다.